

PEACE

Sustainable “PEACE”

전쟁, 분쟁, 분노, 슬픔, 에서 평화를 얻는다면, 지구도 인류도
함께하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며 그것이 곧 지속성을 말한다.
평화의 시작은 권력도 돈도 아닌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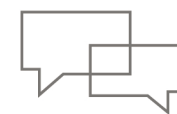




PEACE



TABLE



TALK

MOTIVE

모든 사람들은 대화를 한다.
대화는 이해를 돕고, 이해는 평화를 찾게 된다.

그 창을 여는 곳,
사각형의 테이블이 대화를 상징한다.
테이블 속에서 대화가 쌓여 모두에게 꽃이 피길 바란다.

모두의 지속성을 위한 방법,
평화를 향한 그 대화의 시작은 테이블이다.



평화가 오기 전 다양한 아픔을 상징하는 화살나무
“전쟁” 하면 떠오르는 어둡고 무거운 색



평온하고 화목한, 즐거운 분위기를 꽃으로 연출
여러 민족이 함께 대화하며 하나가 됨을 상징함



대화를 통해 모두의 평화가 지속되길 바라며

06. 화훼디자인

기다려, 봄

“만물이 창생하는 아름다운 봄, 과연 모든이들에게 아름다운 봄일까요...”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할 중요한 이슈이다.

지속가능한디자인이라는 큰 주제 속에 있는 ‘봄’이라는 주제를가지고 작품을 표현한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저 보고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작품을 통해 한번쯤은 지구상 최북단에 존재하고 있는 소외된 이들인 순록과 툰드라 이누이트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Design Motive

기다려, 봄
봄을 기다리는 다른 마음을 표현하다



순록은 때가되면 대이동을 하는 포유동물이다. 그러나 **빨리 찾아온 봄** 때문에 순록의 주식인 지의류의 어린 잎들은 순록이 도착하기도 전에 다 자라 영양가가 빠져버리게 되고 겨우내 이동해 도착한 북극엔 더 이상 순록들이 먹을 양식은 없다. 점점 작아지는 몸집과 점점 줄어가는 개체수. 그리고 그곳에는 **사라져가는 순록** 때문에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툰드라 이누이트족이 있다.

기후변화는 북극에 제일 영향을 끼치지만 북극에서 일어나는 일은 북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이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가 북극의 변화를 그저 즐길 수 만은 없는 이유다. 강인해보이지만 자연의변화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순록. 이들을 대표하는 뿔을 형상화하여 작품을 표현하고자하였다.

Design Concept

순록의 뿔을 형상화한 나뭇가지에 봄에 피는
초화들을 위주로 장식하여 작아지고 약해진
순록의 현실을 표현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작품의 모습은 싱그러운 봄이지만 이런 봄을
마냥 즐길 수 만은 없는 북극의
소외된 이들의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노란색계열인 수선화와 대비되는
보색관계의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생동감있는 봄을 표현함과 동시에
상반되는 봄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



06. 화훼디자인

REVID



“Re + Vivid”

가치가 없는 것, 쓸모가 없는 것, 그래서 버려진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쓰임을 다하고 버려집니다.
사람들은 빛을 바래 생기를 잃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라도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준다면
다시 빛을 냅니다.
편견 속에 가둔다면 결코 쓸 수 없습니다. 편견이라는 새장 속에서
꺼내 쓴다면 비로소 버려진 모든 것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생기를 잃고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
도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바랜 무언가가 누군가 가치를 알아준다면 비로소 다시 생생해집니다.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알아봐주세요.”



DESIGN

CONCEPT



Re + Vivid :다시 생생해지다

새장 안에 갇힌 새는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새장이라는 편견,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비로소 가치있는
존재로 뿔어 나아갈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버려진 것들도 디자이너의 손길로 다시
생생해 질 수 있음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Thema: Raumschm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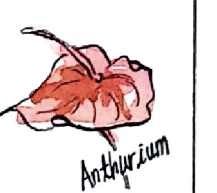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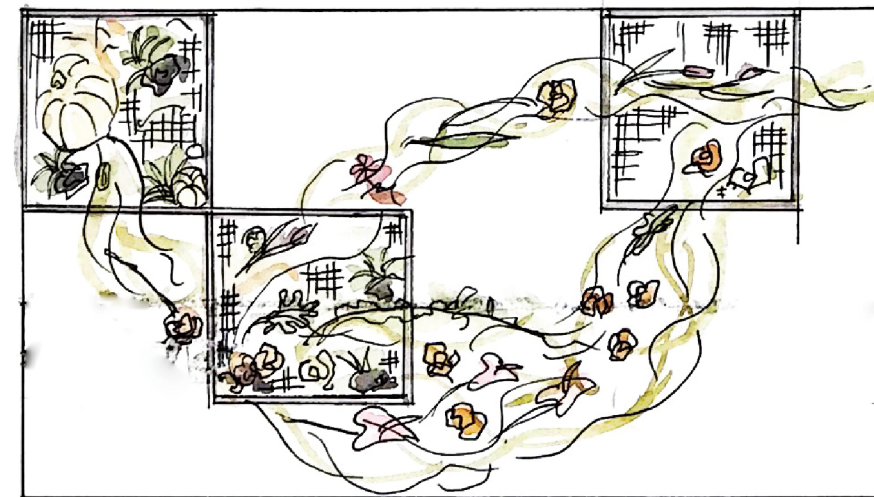
2.00m

2.50m

L.



G.



1.80m

M. = 1:14

Name : YoonJong Jo

Ort : Seoul

Datum : 23.3.2018



VEGETATIV



: 식생정인, 식물성의, 식물의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치기 전의 상태
작품이 되기 전, 존재 그대로의 식생적인 상태

DEKORATIV

: 장식의, 장식적인

디자이너의 손길을 거친 후의 상태
가치없는 것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난 작품





누군가 가치를 알아줄 때, 밤이든 낮이든
형편과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것이든 다시 생생한 빛을 낸다.